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후 2:30
- 장소 : 서울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광 복 회

추 모 사

오늘,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아 향기 진동하는 말씀 한마디를 음미해 봅니다.

“사람 인(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버티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2천만이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중앙학교 교감 시절, 제자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호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새겨들어야 할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이 세우는 민립대학 기성회 활동과 우리 땅에서 나는 물자와 제품을 활용 하자는 물산장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셨으며,

농촌의 문맹자 구제를 위한 농촌 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도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에서도 임시정부의 ‘절대 봉대론’을 주장하신 선생님께서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언론활동을 통한 실력양성을 주창하신 참 언론인이셨습니다.

우리민족은 미완의 광복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면서 분단의 모진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민족동질감을 회복하여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찍이 민족의 단합을 역설하신 선생님이시어!

오리무중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조성되어 이 땅의 주인인 한민족이 세계인과 더불어 영구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 5. 6

광복회장 직무대행 허 현